



동방경제포럼 소식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은 일련의 러-중간 협력 합의를 체결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행사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국 대표단에는 9개 도성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리아 노보스티)

2018-동방경제포럼에는 극동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행사장이 준비된다.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술 추이에 대한 강연을 하며, 젊은이들은 포럼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gazeta.ru)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는 520억 루블에 달하는 12개 투자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업체로는 바임스카야 광산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는 금과 동 채굴지인 '차운-빌리빈스카야' 산업지대 안에 들어설 제 2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의 핵심 입주업체가 될 것이다. (리아 노보스티)

국내 유수의 금과 석탄 채굴가공업체 대표들이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한다. 포럼 첫날에는 석유가스가공업 및 광물자원채굴의 전망, 지질탐사의 문제점, 극동 항만 인프라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극동 비즈니스-가제타)

'극동의 거리' 전시회에서 야외영화관이 운영된다. 포럼 참가자와 방문객들은 2016년~2018년동안 극장에 개봉된 러시아 영화들과 제 5회 세계 야외영화 페스티벌 출품작들인 일본 감독들 작품과 단편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Russiatourism.ru)

2018-동방경제포럼 개막 축하를 위해 '러시아' 열기구가 비행한다.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북쪽으로부터 보스포르 해협 보스토치니를 가로지르는 열기구 비행이 9월 8일 '러시아의 비상'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PrimaMedia)

동방경제포럼 문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린스키 극장이 '짜르의 신부' 오페라 새로운 버전을 공연한다. 관객들은 화려한 비주얼 효과와 의상들이 곁들여진 러시아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리아 노보스티)

극동 소식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가 43억 루블을 투자하여 도매중개 센터 건설을 시작했다. 이 센터의 첫 라인은 2019년 1사분기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테르팍스)

2018년 1월~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이용객이 20% 증가했다. 총 공항 이용객은 1.708백만 명에 달했다. 국제선은 47% 증가했고, 국내선은 5% 증가를 보였다. (인테르팍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www.roscongress.org